

'쓰레기 산' 세계가 주목한 한국 폐기물

미국 언론이 한국인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을 세계 최대 수준으로 지적하며 한국의 쓰레기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지난달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전국 불법 폐기물 현황은 120만여t, 전남지역에도 3만 2400t이 산재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미국 CNN 방송은 경북 의성군 단밀면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 산' 문제를 다뤘다.

이곳에는 현재 17만3000여t의 거대한 폐기물 더미가 산처럼 쌓여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이라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들어온 폐기물이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거대한 쓰레기 산으로 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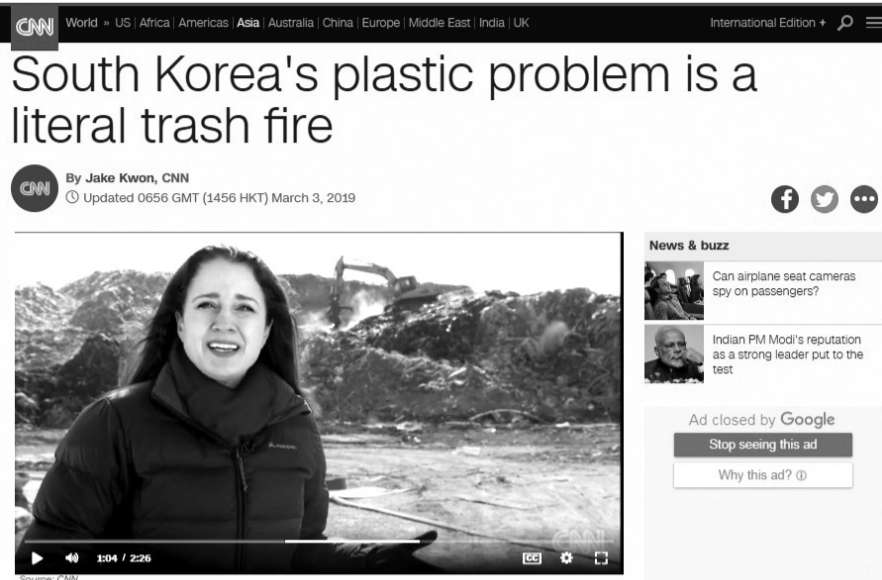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생긴 가스로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자 경찰은 이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이 처리장에서 2000t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방치된 채 쌓여 있는 폐기물은 허가량의 80배가 넘는 수준이다.

현재까지 쓰레기가 방치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CNN 취재진은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2017년에 세계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에 스모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쓰레기 소각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졌다.

CNN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최대 수준" 보도
불법 폐기물 120만여t ... 전남에도 3만2400t 산재



Seoul (CNN) — Uiseong, a picturesque South Korean farming county, was a backwater until homegrown heroes the Garlic Girls became breakout stars and curling silver medalists at last year's PyeongChang Winter Olympics.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 산' 문제를 미 CNN방송이 최근 집중보도했다. CNN은 단순히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를 규제하는 수준을 넘어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환경 단체의 지적을 소개했다. /연합뉴스

이론적으로 쓰레기는 재활용, 연료로 재처리, 소각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되는데, 스모그 문제 때문에 쓰레기의 연료화 및 소각이 제한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611곳이었던 우리나라 쓰레기 소각 시설은 지난해 395곳으로

줄었으며, 연료화에 쓰이는 고형폐기물(SRF) 수요도 붕괴했다.

또 2017년 말 중국이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각국으로부터 들어오던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통상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중

국 등 아시아 국가로 수출돼 재활용됐으나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에 '쓰레기 대란'이 시작됐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량이 90%나 줄었다고 CNN은 전했다.

한국은 대안으로 필리핀, 태국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쓰레기 수출을 늘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필리핀으로의 수출량은 중국의 수입 중단 조치 이전과 비교해 10배, 태국은 30% 넘게 증가했다.

일부 업체가 필리핀에 플라스틱으로 위장해 수출했던 폐기물은 현지 환경 단체 등의 반발 속에 최근 반송되기도 했다.

이처럼 쓰레기 처리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자 한국 정부는 쓰레기 소각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환경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44개 민간 소각 업체, 19개 매립업체와 불법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린피스 코리아 등 환경 단체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문제 외에도 플라스틱 사용이 더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기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CNN은 2015년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32kg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며, 단순히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를 규제하는 수준을 넘어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환경 단체의 지적을 소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경칩 ... 무등산, 북방산개구리 산란 시작 장불재 일원에 도롱뇽·참개구리 등 서식 확인

경칩(6일)을 앞두고 무등산에서 북방산개구리 산란이 관측됐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장불재(900m) 일원에서 북방산개구리가 산란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북방산개구리는 기후변화에 민감하며 양서류 가운데 가장 먼저 산란을 시작한다.

소규모 습지가 조성된 장불재 일원에는 북방산개구리뿐만 아니라 도롱뇽, 참개구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2013

년 자연자원조사 때 확인했다.

양서류 산란지가 장불재에서 백마봉 선에 이르는 탐방로와 겹쳐 서식환경이 불안정했으나 2016년 보호 조치를 시작하고 안정적인 산란을 유지하고 있다.

나경태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양서류 서식환경을 개선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환경기초조사사업 12개 연구과제 추진

영산강유역환경청

현안문제 해결 방안 마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환경 관리 기초자료 조사 및 환경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을 위해 올해 12개 연구과제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기초조사사업은 2003년부터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해 총 191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올해 사업은 계속과제 6개, 신규과제 6개 등 총 12개 연구과제에 대해 22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12억원이 투입되는 신규 과제(6개)에는 '농업용수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하천유량 확보 및 수질개선 효과 분석', '영산

강하구 해수유동에 따른 영향 예측 및 하구 복원 방안 제시'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가 다수 포함됐다.

계속 과제(6개)는 지난해에 이어 '영산강·섬진강수계 지류·지천 수질·유량 모니터링' 등 중·장기적인 수계 물환경 기초자료를 구축한다.

신규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은 이달 중 나라장터(www.g2b.go.kr)에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참가기관의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 후 최종 선정된다.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지난해 6월 물관리 통합에 따라 수질·수생태계 분야에서 수량·부분까지 보다 유능한 물관리 자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영산강환경청, 전남 158곳 토양오염 실태 조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토양오염 실태와 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전남 지역 측정망 158곳에서 조사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토양보전정책수립기초자료를 모으기 위한 측정망 317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전남 158곳, 광주·

경남·제주 159곳을 격년으로 조사한다.

올해는 전남지역 측정망에서 중금속 등 22개 항목을 조사한다. 2010년 이후 조사에서 사람의 건강과 재산, 동·식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되는 토양오염 사례는 없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환경공단, 고려인 자녀 초청 '환경사랑 에코투어'

35명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견학

광주환경공단은 "광주에 정착한 독립투사 후손인 고려인동포 자녀 35명을 대상으로 '고려인마을 아동들과 함께하는 환경사랑 에코투어(사진)'를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진행된 에코투어는 광주이주 고려인동포 자녀들이 국내 거주하는 동안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일상 속에서 친환경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광주지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광주제1하수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을 차례로 견학한 뒤 환경사랑 체험으로 천연 페브리지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호남기후변화체험관을 둘러 기후변화 및 지구 생태환경 교육을 받은 후 재활용 태양광 소망등 만들기 체험을 통해 기후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지구 변화를 눈과 귀로 익혀 나갔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가득 담겨있는 담양을 방문 메타세쿼이아 길을 돌아보는 문화탐방 시간도 가졌다.



광주환경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주정착 고려인마을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려인동포는 물론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매년 3월3일 '국립공원의 날' 지정 추진 국립공원공단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국립공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자연공원법'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의 날' 추진은 1967년 국립공원 제도 도입 이후 5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립공원 가치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국립공원의 날' 지정 추진을 기념해 3월 5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단 본사에서 임직원 200명이 국립공원 50년 사 봉정식, 순찰차 발대식 등 행사를 열었다.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립공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국에는 22곳의 국립공원이 있다. 총면적은 3972km²로 전체 국토면적(10만 339km²)의 4%를 차지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